

창단 11년만에 '미운오리'에서 '백조'로 화려한 변신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

2010년 창단 이후 최초 PS 진출해 3위 입상
과거 전국 최강이었던 '광주시청 핸드볼팀'
명성 잇기 위해 선수 영입 등 예산 지원 절실

'창단 이후 최초 정규리그 10승 달성 및 4위로 도약, '포스트 시즌 3위 입상', '강경민 정규리그 득점 순위 1위, 공격포인트 순위 1위, 리그 MVP 2회', '서아루 스틸 순위 1위', 'Best 7 원선필(PV), 김지현(LB) 선정'은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 정규리그에서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받은 화려한 성적표다.

2010년도에 창단한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팀 해체 등이 언급될 정도로 존폐기로에 서 있던 '미운 오리'에 가까웠으나, 이번 2020~2021 리그에서 빼어난 성장을 통해 화려한 '백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증명했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의 변신은 2019년도부터 시작했다. 2019~2020 리그에서 만년 꼴찌를 탈출해 시즌 4승을 거두면서 6위에 오르더니, 이번 리그에서는 10승 4무 7패로 4위에 올라서며 창단 11년 만

에 포스트시즌에 진출해 3위 입상이라는 돌풍을 일으켰다.

또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해 삼척시청을 상대로 24대 25, 비록 1점 차이로 패하기는 했지만 대등한 경기를 펼쳐 과거 전국 최강이었던 '광주시청 여자핸드볼팀'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때 해체 가능성까지 언급됐던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이 환골탈태하여 이번 리그 통합 3위에 올라설 수 있었던 주요인으로는, 첫 번째, '팀 분위기 쇄신' 및 '체력강화'이다.

2018~2019 리그에서 21전 1승 20패를 기록하며 연속 8위로 시즌을 마감한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에 해체 위기가 찾아왔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남자국가대표팀과 SK하이닉스 핸드볼팀 감독을 영입한 오세일 현 감독을 영입했다.

광주도시공사의 지휘봉을 새롭게 잡은 오세일 감독은 선수들 개개인

면담을 통해 선수들의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했고, 그 동안 바닥까지 떨어졌던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아 팀 분위기 쇄신에 노력했다.

더불어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던 후반전에서의 선수 체력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력강화 훈련에도 집중했다.

그 결과, 정규리그 총 21경기에서 전반전 대비 후반전에 골 득점이 향상된 경기가 6경기, 후반전에 상대팀보다 더 득점한 경기가 11경기, 무승부가 4경기 등의 결과를 보더라도 체력문제가 해결되고 선수들이 경기 종료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우수선수 영입에 대한 과감한 투자'이다.

오세일 감독은 선임이자마자 전력 보강을 위해 선수 영입에도 노력했다. 먼저 임의탈퇴 신분으로 인천에서 지내던 주공격수 강경민(CB)을 설득해 팀에 복귀시켰다.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우수선수 영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팀 필수 인력인 코치와 주무 대신에 국가대표로 활약 중이던 인천시청의 원 선필(PV)과 국가대표 출신 서울시청의 송해림(CB)을 영입하면서 공격력과 수비력을 보강했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원선필은 중앙에서 상대팀의 두터운 수비를 뚫고 강경민 등 주 공격수들이 득점에 성공할 수 있게 도왔을 뿐만 아니라,



상대팀의 공격시에도 철벽 수비를 선보이며 상대의 공격을 무더지게 만들었다.

강경민이 2019~2020 리그와 2020~2021 리그에서 득점순위 1위에 올랐던 결과를 비롯해 각종 결과들을 보더라도 원선필 선수의 영입은 광주도시공사 팀 전력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갑작스러운 주전 골키퍼의 운동중단이라는 악재가 있었으나 리그 세이브 순위 4위인 서울시청 소속 베테랑 골키퍼 손민지를 영입하는데 성공했고, 경남 개발공사에서 주전으로 활약한 정현희(RB)를 트레이드 영입하면서 공격력이 보완되어 광주도시공사의 전력 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다.

세 번째 요인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다. 최승현 선수 사건 이후 스포츠계에 '미투'가 이어졌고 핸드볼계도 이를 피할 수 없었다. 몇 개의 여자팀들이 이와 관련하여 홍역을 치러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에 참여하거나 어떤 팀은 주전선수의 대규모 이탈로 전력에 누수가 생겼으나, 광주도시공사 팀은 감독과 선수들이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의기투합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우위의 경기를 펼칠 수 있었다.

현재 광주도시공사 팀은 한정된 예산으로 우수선수 영입에 투자하다 보니 합숙소 운영, 전지훈련, 대회출전 등을 위한 운영비가 부족한 현실이다. 경기력 측면에서도 스리백(센터백, 라이트백, 레프트백)을 담당하고 있

는 선수들의 경력이 아직 짧기 때문에 경험있는 노련한 선수 1명은 영입해야 상위권 성적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선수들의 디테일한 훈련지도 및 관리를 위한 코치와 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무 등 필수 인력도 채용해야 한다.

광주도시공사 오세일 감독은 "팀 핵심 선수들의 이적을 막기 위해서는 성과에 맞는 대우 및 미흡한 포지션의 선수 영입도 필요하다. 광주 핸드볼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주시, 광주도시공사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다음 목표는 올해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꼭 따는 것과 다음 시즌에서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광주 핸드볼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라고 의지를 밝혔다. 서선욱 기자

10년만의 축구 한일전 성사...손흥민 출전 협의 중

25일 요코하마서 친선경기
22일 대표팀 소집 예정
손흥민·황희찬·황희찬 등
해외파 클럽과 차출 협의 중

코로나19를 뚫고 10년 만에 축구 국가대표팀 한일전이 열린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25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한일 국가대표팀 친선경기를 갖기로 일본축구협회와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kick-off 시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경기장은 요코하마 닛산 스타디움이다.

일본과 A매치 친선전이 열리는 건 지난 2011년 8월 일본 삿포로에서 맞붙은(0-3 패) 이후 10년 만이다.

2011년 이후에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에서 4차례 대결해 한국이 2승1무1패를 기록했다.

역대 한일전 통산 전적은 79전 42승 23무14패로 한국이 우위에 있다. 일본 원정에서도 30전 16승8무6패로 앞선다.

요코하마 닛산 스타디움은 2002 한일 월드컵 결승전 장소로, 그동안 두 차례 한일전이 열리기도 했던 곳이다. 1998년 3월 다이너스티컵에서는 일본에 1-2로 패했고, 2003년 12월 동아시아컵에서는 0-0으로 비겼다.

축구협회 전한진 사무총장은 "6월



지난 2011년 8월 10일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일본 대표팀의 평가전이 열린 일본 후카이도 삿포로돔에서 한국대표팀 선수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에 열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4경기와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월드컵 최종예선을 앞두고 대표팀의 경기력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 월드컵 예선 등을 고려할 때 귀중한 A매치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소집 대상 선수들이 속한 해외 클럽에는 이미 요청 공문을 보내 협의 중이다. 손흥민(토트넘), 황희찬(보르도), 황희찬(라이프치히) 등이 해당한다.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귀국 후 최초 7일간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코호트 격리(동일집단)

하고, 나머지 7일은 소속팀에 복귀해 경기 출전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각 구단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하고 리그 경기에도 나갈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구단 재량에 따라 출퇴근도 가능하다. 전 사무총장은 "K리그 구단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오는 22일 파주NFC에서 소집될 예정이다.

벤투호가 A매치를 갖는 건 지난해 11월 오스트리아 원정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당시 대표팀은 멕시코에 2-3으로 졌고, 카타르에 2-1로 승리했다.

박주영, FC서울 통산 300경기 출전...구단 역사상 5번째

2005년 서울 입단해 유럽활동 제외 11년간 K리그 활동

프로축구 FC서울의 베테랑 공격수 박주영이 구단 역대 5번째로 통산 300경기에 출전했다.

박주영은 10일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FC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1 3라운드에 출전하며 서울 유니폼을 입고 통산 300경기 출전을 기록했다.

2005년 서울에 입단한 박주영은 유럽 활동을 제외한 11년 동안 K리그(정규리그·리그컵) 265경기,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20경기, 대한축구협회(FA)컵 15경기에 출전했다. K리그에선 서울 유니폼만 입었다.

300경기에서 기록한 골은 총 90골

(31도움)이다. K리그에서 76골, 챔피언스리그와 FA컵에서 7골씩 기록했다. 다음은 리그에서 23개, 챔피언스리그에서 3개, FA컵에서 5개를 올렸다.

박주영의 서울 통산 300경기 출전은 구단 역사상 5번째다.

최다 경기 출전을 기록한 선수는 고요한으로 412경기에 나섰다. 데안(330경기), 아디(305경기), 윤상철(303경기)이 뒤를 잇는다.

윤상철의 경우, 프로축구연맹에서 이벤트 경기로 규정하고 있는 1992년 리그컵 챔피언결정전 2경기과 기록 미상의 전국축구선수권대회 5경기는 제외했다.



추신수 등장 사직구장 '들썩'...팬 몰려 '파이팅'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추신수(39·SSG 랜더스) 선수가 11일 오후 연습경기에 나선 팀에 합류하기 위해 사직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추추 트레이너' 추신수(39·SSG 랜더스)가 선수단에 합류한 11일 부산 사직구장.

이날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SSG의 연습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됐지만 경기 시작 전부터 야구장이 들썩었다.

100명이 넘는 취재진이 경기장을 찾았고, 추신수의 얼굴을 잠깐이라도 보기 위해 수십 명의 팬들이 야구장에 몰려들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6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정상급 타자로 활약한 추신수는 SSG와 계약하고 전격

KBO리그행을 결정했다.

프로야구 역대 최고 연봉(27억원)을 받고 SSG 유니폼을 입은 추신수는 지난달 25일 입국해 경남 창원에서 2주 간의 자가격리를 거쳤다.

입국 직후 격리에 들어갔던 추신수가 공식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라 이목이 집중됐다.

롯데와 SSG 홍보팀 관계자들도 포스트시즌 못지 않은 취재 열기에 허를 내몰렸다.

SSG 홍보팀 관계자는 "한국시리즈를 방불케 하는 것 같다"며 "롯데에 패를 끼치는 것 같다"고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롯데 홍보팀 관계자도 "역대급으로 취재진이 많이 모인 것 같다"며 바빠 움직였다.

김원형 SSG 감독은 추신수와 첫 만남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가 우리 팀에 와서 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이 함께 생활하는 첫날이다"며 "다들 기쁘게 맞이할 것 같다"고 기대되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뉴스

"김광현, 올해 깜짝 활약 펼칠 선수" 美 언론 주목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메이저리그 2년 차인 올해 깜짝 활약을 펼칠 선수로 선정됐다.

미국 CBS스포츠는 11일(한국시간) 판타지 베이스볼 랭킹을 내놨다.

김광현은 2021시즌 최고의 슬리퍼(처음에는 주목 받지 못하다 깜짝 활

약을 펼치는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매체는 "김광현은 한국에서 12시즌을 뛰며 통산 136승77승 평균자책점 3.27의 성적을 남겼다. 2년 최대 1100만 달러의 계약을 맺고 세인트루이스로 왔다"며 "지난해 4가지 구종을 무기로 3승무패 평균자책점 1.62를 기

록, 한국에서의 활약을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어갔다"고 적었다.

"김광현은 지난해 39이닝 동안 24탈삼진만 기록했지만, 체인지업으로 36.4%의 헛스윙을 유도했다"고 덧붙이면서 강한 타구를 맞는 비율이 낮은 점도 강조했다.